

무안토브마을학교,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한 축제 '성료'

강소농 대전 '우리 마을서 놀고팜' 행사 개최 "축제의 새로운 형식 보여 주는 뜻깊은 자리"

무안교육지원청(김란 교육장) 중심 마을학교인 토브마을학교는 지난 10월 30~31일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한 2020. 강소농 대전-우리 마을에서 놀고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 '우리 마을에서 놀(play)고(go)팜(farm)'은 마을의 먹거리, 놀거리를 지역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같이 하는 멋진 농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축제를 넘어 지역 교육공동체(토브 마을학교, 무안중학교, 전남예술평

등학교 등)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토브식품, 힐링봉사회, 백련마을 공동체 등 민·관·학이 함께한 한마당 축제로 지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첫째 날, 코로나19를 대비 마을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드라이브스루로 전달하였으며, 마을 아이들은 코로나19 극복 씬아체 키트를 생산자 농가에서 직접 만드는 체험을 했다.

또한 무안중학교 학생들은 1년 동안 학교에서 활동한 그림, 사진 등의

작품을 토브마을학교에 전시하는 '미래인재들의 전시나들이' 행사와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께 마을학교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누는 효사랑을 실천했다.

둘째 날에는 지역 예술인 도예가 한갑수씨를 초빙하여 직접 물레를 돌릴 수 있는 체험활동을 시작으로 무안나들이마을학교의 사물놀이, 전남예술평고등학교 학생들의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일로지역의 화산백련지에서 생산되는 연근을 이용하여 만드는 '팜스토랑' 연잎쌈밥 만들기 체험과 떡메치기교 행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날 참여한 한 지역민은 "코로나19로 위축되어있는 지역사회에서 축

제의 새로운 형식을 보여 주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진 토브마을학교 대표는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마을을 더 강하고 멋지게 지켜나가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란 교육장은 이번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티슈)을 지원했으며, "우리 마을에서 놀(play)고(go)팜(farm) 행사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안에서 문화로 정착되어 학교와 마을, 지역이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대, 제21회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 개최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발굴·창업 마인드 고취하고자 마련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최근 국제문화컨벤션관 3층 창업교육실에서 '제21회 전라남도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라남도 대학 벤처 동아리를 대상으로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6년 연속으로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주관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

마인드를 고취하고자 마련하였다.

올해 대회에는 순천대학교를 포함한 8개 대학에서 총 28개 동아리가 참가하였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5개 팀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최종 평가 결과 순천대학교는 '문화상품디자인'을 아이템으로 선보인 'auer studio'팀(매선디자인학과)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 '다용도와펜' 제품을 선보인 'Be in one's Youth'팀(매선디자인학과)이 우수상을, '식용 곤충(갈색 거저리/고소애)을 사용한 건강 팻쿠키'를 아이템으로 선보인 '쿠킹마마'팀(조리과학과)과 '실버 세대 발효 건강음료'를 제품으로 선보인 '발효골드'팀(식품공학전공)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대회를 통해 입상한 우수 아이템은 사업화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하고 전라남도 주관의 '2021 대학 벤처동아리 육성지원사업'에 우선 지원되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 팀에게는 대상 200만원(1팀), 우수상 100만 원(4팀), 장려상 50만 원(4팀) 등 총 800만 원의 수상금이 지원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찾아가는 꿈 자람 체험활동' 진행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위한 다양한 놀이 경험 제공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이 유치원 체험활동을 위해 12월 10일까지 공·사립유치원 60개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꿈 자람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3일 유아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찾아가는 꿈 자람 체험활동'은 ▲건강 팡팡!(2개 팀) ▲호기심 팡팡!(2개 팀) ▲재미 팡팡!(1개 팀) 등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는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유치원은 한 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유아교육진흥원 소속 유아교육사들이 총 5개 팀을 구성해 유치원의 체험 희망일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팀 당 주 2회씩(1회 체험시간-1시간30분) 6주 동안 진행한다.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

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동시 체험 인원을 25명 이하로 제한하고 최대 3부제까지 운영키로 했다.

체험에 참여한 비아초병설유치원 손경아 교사는 "다양한 체험활동들이 코로나19로 중단됐었는데 이번 광주 유아교육진흥원의 '찾아가는 꿈 자람 체험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어 유아들이 무척 행복해 했다"며 "이 프로그램이 많은 유치원에 지원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채미숙 원장은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종식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유아들에게 즐겁고 신나는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혁신학교 권역별 활동가 토론회 개최

순천·광양·무안 등 세 곳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전남혁신학교' 1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형 혁신학교 건설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4일, 5일 동안 순천과 광양, 무안 등 세 곳에서 2020 '전남혁신학교 활동가 권역별

토론회'를 갖는다.

동부권역은 4일 엘리시아웨딩컨벤션(순천), 서부권역은 5일 전남교육연구원(남양), 그리고 중부권역은 5일 공유광주센터(광주 진월동)에서 오후 4시~7시 각각 진행된다.

도내 128개 혁신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 토론회 참석을 안내한 결과 동부권은 90여 명, 중부권과 서부권은

각각 40여 명의 교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도교육청 혁신학교팀과 전남혁신학교지원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남혁신학교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선후배 교사들이 학교혁신 활동의 의미와 방향을 공유하고 세대 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광양중앙도서관 청소년 웹툰 프로그램 운영

오늘 오후 4시부터 관내 중고등학생 10명 선착순 모집

광양중앙도서관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한다.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 과정'은 청소년들이 직접 개인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스토리와 콘티 제작, 스케치, 펜선 그리기, 채색하기, 대사와 효과 넣기 등의 실습을 통해 완성된 자

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오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 2회, 총 8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과정은 순천 글로벌 웹툰센터 이혜주 작가가 강사로 나서 매주 수요일(16:30)과 토요일(14:00)에 열릴 예정이다.

강연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강의

특성상 강사와 수강생 개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가운데 대면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관내 중고등학생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4일 오후 4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광양중앙도서관(☎061-797-3866)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